

# 광양, 내년 현안 국비 확보 '구슬땀'

### 4건 6,879억원 기재부 지원 요청 광양항~울촌산단 도로 개설 건의 폐수관로 스마트관망 필요성 강조

광양시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정부예산 심의에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최근 일기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김장훈 총사업비관리과장 등 간부공무원을 면담해 총 4건 국비 총액 6,879억 원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사업은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3,118억 원)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6,915억 원)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992억 원)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스마트관망 관리(80억 원) 등이다.

먼저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와 여수 울촌 일반

산단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광양항~울촌산단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B/C값이 1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광양시는 인근 개발 예정인 울촌융복합물류단지과 울촌2산단까지 반영하면 여건이 갖춰지면 전남과 경남 서부권 물류를 연결하는 중심지역할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다음으로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내년 국비 453억 원을 건의했다. 코로나19와 해운동맹 등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추세와 항만 노후화로 터미널 생산성이 저하된 광양항에 자동화부두 4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세계적인 항만 자동화 추세에 대응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광양항을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시장은 광양읍 세풍 일반산업단지 일부를 매입해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사업'의 내년 국비 62

억 원을 건의했다.

현재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분양률이 94%에 이르며 공급 가능한 항만 배후단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스마트관망 관리' 사업의 내년도 국비 21억 원을 건의했다. 36여 년이 경과한 광양국가산단 폐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른 파손으로 폐수 누수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폐수관로의 실시간 유량을 확인하고 관로 상태를 파악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정인화 시장장은 "신규사업의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수시로 방문해 광양시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동현 기자



베트남 재배국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최근 호치민시에서 영농형 태양광 프로젝트 MOU를 체결하고 있다. /㈜BK에너지 제공

## 여수 (주)BK에너지, 베트남 태양광사업 진출

여수에 소재한 태양광시설 전문업체가 해외 진출 성과를 거두며 관심을 끌고 있다.

㈜BK에너지가 최근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62개 도시를 대상으로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보급 1단계 시범 단지 조성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기술 및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맺었다. 이날 베트남 재배국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영농형 태양광 베트남 프로젝트 전체를 추진키로 하고 (주)드림글로벌, 영농형 태양광 특화기업인 (주)BK에너지, 재생

에너지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스코(주), 해외 실증 시범사업 운영 경험이 많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의 다년간 MOU를 체결했다.

베트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베트남 국회에서 의결돼 베트남 농림부 재배국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농업, 축산업, 양식업 등 베트남 현지에 최적화된 기술을 적용해 계통연계형과 독립형 2가지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해 347GW를 생산할 예정이다. 실증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권동현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만습지에서 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설명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일류순천 2050 TF, 도심 현장 투어

순천의 미래 구상을 위해 발족한 '일류순천 2050 TF'가 최근 도심 현장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도심 현장 투어는 TF팀 구성원의 혁신마인드 함양과 더불어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분야별 미래 비전 모색과 변화를 이끌 시책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현장 투어는 잠재적 미래가치가 큰 연향뜰을 시작으로 산단 및 신대

지구를 둘러보고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펼쳐질 원도심과 순천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죽도봉, 그리고 동천의 종착역 순천만습지(용산전망대)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별 이동 시간에는 현재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TF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시장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

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순천 미래 구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순천만습지 방문에는 노관규 순천시장도 동행, 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장착한 선배공무원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잠재 가능성을 지닌 MZ 세대 공무원들이 잘 융합해 순천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그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사업 재개

### 법원, 공사중지가처분 기각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사업 반대대책위가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업체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4일 관련 업체와 포두태양광협동조합에 따르면 포두면 A씨 등 13명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판사 박희두)는 송전선로와 관련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당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하거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송전선로 전자파 피해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개발행위(송전선로) 허가에 관한 어떠한 절차적 위법도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어 고흥신에너지(주)에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가처분신청'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사로 인하여 설치될 지중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나, 건강을 해칠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의 규모 및 건설 목적에 비해 시설 치가 중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송전선로의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업체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고흥=진중현 기자

## 보성, 여름철 가축 재해 예방대책 추진

보성군이 다음 달 31일까지를 여름철 가축 재해 발생 우려 기간으로 정하고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농가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간이·노후 축사 및 저지대 시설 등 가축 재해 취약시설에 대

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축 재해 예방을 위해 3억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200여 명에게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해충 퇴치 장비, 축사 지붕 열 차단재 도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

## 클릭! 고흥 속으로



### 구례 토지면, 국가유공자 명패 설치

구례군 토지면 우리동네 복지기둥대가 최근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복지기둥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증진과 범국민적인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명패를 국가보훈처를 대신해

달아드렸다. 김선열 복지기둥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효숙 토지면장은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해 소외된 이웃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손석봉 기자



### 곡성미래교육재단, 예술로 이중언어 캠프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최근 해외 청소년과 곡성 청소년의 특별한 만남 '예술로 이중언어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언어를 내려놓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핵심을 뒀다. 나와 너, 한국과 미국, 삶과 예술, 도시와 시골 등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연결점을 찾아 친구를 만나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캠프는 봉지인형으로 나를 소개하기, 곡성의 정서, 할머니 집 방문 등 곡성만의 이야기가 가득한 사람과 공간들 거닐며 진행됐다.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곡성에서만 머물지 않고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 광양 진상면-진상초, '학교 살리기' 협약

광양시 진상면이 최근 진상초와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 민·관·학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상면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입학생과 전입생 유치를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인 중마동과 광영

동 일대에서 시화전, 오케스트라 버스킹 등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황정환 진상면장은 "진상초는 개교 이래 100년의 역사를 지역과 함께 한 지역민의 구심점이다"며 "진상초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